

## 북한 단어결합론과 옛 소련 단어결합론

—60년 문법을 중심으로—

趙義成

## 북한 단어결합론과 옛 소련 단어결합론

—60년문법을 중심으로—

趙義成

북한 문법론에서 1960년과 1963년에 간행된 “조선어 문법 1, 2”(북한 60년 문법)는 북한 과학원 창설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문법서로, 북한 문법론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책이다. 이 문법서는 1952년과 1954년에 옛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간행된 “러시아어 문법”(소련 60년문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되는데, 단어결합론에 관해 고찰하면 “북한 60년문법”은 “소련 60년 문법”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북한 60년문법”의 “문장론”편에서는 단어결합론의 중심적 단위원 “단어결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옛 소련의 단어결합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북한의 단어결합론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핵심어: 단어결합, 북한, 소련, 러시아, 통사론, 진술성, 결합, 접속

### 0. 들어가기

북한 문법론에서 1960년과 1963에 간행된 “조선어 문법 1, 2”(이하 “북한 60년문법”이라 부름)는 북한 과학원 창설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문법서로, 북한 문법론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책이다. 이 문법서는 1952년과 1954년에 옛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간행한 “러시아어 문법”(이하 “소련 60년문법”이라 부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

는데, 단어결합론에 관해 고찰하면 “북한 60년문법”은 “소련 60년문법”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북한 60년문법”의 “문장론”(통사론)편에서는 단어결합론의 중심적 단위인 “단어결합”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러시아어 단어결합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북한의 단어결합론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1. 단어결합의 정의

### 1.1 “소련 60년문법”에서 단어결합의 정의

단어결합(slovosochetanie)에 관한 “소련 60년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단어결합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은 자립적 품사<sup>1)</sup>에 속하는 단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에 의해 구성되고, 단일하지만 분절된 어떤 개념이나 표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문법적 통일체이다.”(소련 60년문법, 제2권, 제1분책, 6면; 굵은 글자는 원문에서 격자체(隔字體)임)

예를 들면 zakon vseirnogo tjagotenija(만유인력의 법칙)라는 세 단어의 연결체는 단어란 단위로 분절될 수 있으나 전체로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결합이다. 마찬가지로 učit'sja v universitete(대학에서 배우다)나 nedaleko ot Moskvy(모스크바에서 가까이)도 단어결합이다.

1) 러시아어에서 자립적 품사는 Nomen(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부사를 이른다. 이것에 반해 비자립적 품사에는 전치사, 소사(particle), 접속사가 속한다. 옛 소련의 문법서 가운데는 자립적 품사를 “품사(chasti rechi; parts of speech)”, 비자립적 품사를 “소품사(chasticy rechi; particles of speech)”라고 규정하는 것도 있다. 홀로도비치(1954)에서도 한국어 조사 따위를 “소품사”로 규정하고 있다.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또한 단어결합을 “문장의 구성재료”, 즉 문장의 “부품”으로 규정하고, “다만 문장의 성원으로서만, 그리고 문장을 매개로 해서만 언어의 전달적 단위의 체계에 들어가”며 문장 밖에서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명명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 밖에서의, 명명의 단위로서의 단어결합”이란 개념은 단어결합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즉 통사론의 두 연구대상인 단어결합과 문장은 각각 “명명의 단위”와 “전달의 단위”라는 차이가 있으며 단어결합이 명명의 단위라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단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진 단위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위의 예에서 učit'sja v universitete는 Ja X(나는 X하다)라는 문장에서 X의 자리에 하나의 동사 대신 učit'sja v universitete라는 단어결합이 올 수 있다. 즉 단어결합은 분절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위인 셈이며 단어와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 “북한 60년문법”에서 단어결합의 취급

“북한 60년문법”의 “문장론”편에서 “단어결합”이란 단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0.에서도 언급했으나 실은 제1권(어음론, 형태론편)과 제2권(문장론편) 사이에서는 단어결합에 대한 자세가 약간 다르다. 제1권에서는 “단어결합”이란 단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장 안에서 두 개 이상의 실질적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법적 통일체를 단어결합이라고 부르며, 단어결합은 다시 개별적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로 구분된다.”(북한 60년문법, 제1권, 4면; 밑줄은 원문 대로임)

이 정의는 “소련 60년문법”의 그것과 대략 같지만 단어결합론이 실질적으로 전개되는 제2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과 함께 “단어결합”이란

통사론적 단위를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견해에 따라서는 《단어 결합》이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적 단위를 설정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문장론의 한 과업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북한 60년문법, 제2권, 20면)

그리하여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단어결합”을 대신하는 것으로 “결합”과 “접속”이란 하위부류를 가진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이란 단위를 설정했다. 따라서 “소련 60년문법”에서 통사론의 연구대상은 단어결합과 문장인 데 반해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과 문장이 통사론의 연구대상으로 되었다.

### 1.2.1 “북한 60년문법”에서 “결합”의 정의

우선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의 첫째 하위부류인 “결합”의 정의부터 보기로 한다.

“결합이란 두 개의 단어가 서로 상관적 관계<sup>2)</sup>를 가지면서 문장론적 기능에 따라 연결됨을 말한다.”(북한 60년문법, 제2권, 18면)

이 정의를 보는 한, “결합”은 “소련 60년문법”에서의 “단어결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60년문법”에서는 “결합”을 두 개의 단어의

2) 같은 면에 ‘우리는 지킨다’라는 “결합”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우리는》과 《지킨다》 사이에는 하나는 설명을 받는 단어로 되고 하나는 설명을 하는 단어로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이라는 설명을 받기 위한 단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지킨다》가 설명을 하는 단어로 될 수 없으며 또 반대로 《지킨다》가 설명을 하는 단어로 된다는 전제가 없이는 《우리는》이 설명을 받기 위한 단어로 될 수 없다. 이렇게 호상 의존하며 호상 제약하는 상관 관계가 두 단어 사이에서 맺어져 있다”(북한 60년문법, 제2권, 18-19).

관계로 한정해 “소련 60년문법”에서의 단어결합의 정의인 “단어 두 개 또는 그 이상”과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견해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두 단어의 결합을 “단순 단어결합”이라고 불러 이것을 단어결합의 기본 유형으로 간주하고, 세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복합 단어결합”이라고 불러 2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련 60년문법”에서 언급된 “문장을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단어결합”이라는 개념은 “북한 60년문법”에서 언급이 없다. 이것에 관해서는 “북한 60년문법”에서 “단어결합”이라는 단위를 인정하지 않은 문제와 함께 후술할 것이다.

### 1.2.2 “북한 60년문법”에서 “접속”의 정의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접속”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접속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제 3의 어떤 단어에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공동적으로 가지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북한 60년문법, 제2권, 17면)

“접속”의 예로서 ‘동해는 깊고 넓은 바다다’, ‘산이 낮지만 험하다’, ‘노래에 춤에 연극 등’, ‘붓하고 먹을 가져 오렴’ 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결합”은 두 단어가 종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된 것인 데 반해 “접속”은 두 단어(또는 그 이상)가 등위적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북한 60년문법”처럼 “결합”, “접속”이란 구분을 하지 않지만 “접속”에 유사한 것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단어결합의 하위 부류로서 일치, 지배, 접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위 단어결합과 등위 접속사나 열거의 억양에 의해 만들어

지는 등위 단어결합<sup>3)</sup>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위 단어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접속”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결합”과 “접속”을 구분한 것에 대해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가 있다:

“이렇게 접속과 결합은 다 같이 문법적인 것이라 하지만 그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저작에서는 단어의 문법적 연결을 이 두 유형으로 갈라서 보기로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결합>의 의미를 더 넓게 설정하고 이 접속이나 결합을 모두 <결합>이라 부르기도 한다” (북한 60년문법, 제2권, 19면)

옛 소련의 견해로서는, 예를 들어 Ja chitaju knigu i gazet(u) (나는 책과 잡지를 읽는다)란 문장에서 단어결합 chitat' knigu i gazet(u) (책과 잡지를 읽다)는 “소련 60년문법”에서 kniga i gazeta (책과 잡지)란 등위 단어결합을 인정했었는데, “소련 80년문법”에서는 knigu (책을)와 gazet(u) (잡지를)는 각기 별개로 chitat' (읽다)와 결합한다고 해서 등위 단어결합을 부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knigu, gazet(u)란 곡용형(단수 대격형)이 chitat'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별개로 결합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나는 책과 잡지를 읽는다’란 문장의 ‘책과 잡지를 읽다’에서 ‘잡지를’(대격형)은 확실히 ‘읽다’와 연결되지만 ‘책과’는 격 표시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처럼 ‘책’과 ‘잡지’가 각각 별개로 ‘읽다’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어, ‘책과 잡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을 필요가 생긴다.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이러한 차이점에서 “접속”이란 단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3) 그후 옛 소련에서는 “등위 단어결합”을 단어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위 단어결합”만을 단어결합으로 삼았지만 “접속”과 같은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 2. “결합”, “접속”의 하위 구분

### 2.1 “결합”의 하위 구분

#### 2.1.1 결합방식에 의한 “결합”의 구분

결합 방식에 따른 구분을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38-39):

- 1) 위치적인 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 a. 격토: 들판을 스치다, 봄'바람이 불어 오다
  - b. 규정형 토: 맑은 아침, 똑똑한 아들
  - c. 일부 접속형 토: 넓게 파다
  - d. 위치적인 도움토: 작년보다 많다, 진주처럼 반짝인다
- 2) 형태 변화가 없는 단어로 이루어지는 결합: 모든 사업, 열심히 참가하다
- 3) 보조적인 단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

한편,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단어결합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ㄱ) 일치(규정어가 비규정어의 성, 수, 격 형태에 동화되는 결합)
- ㄴ) 지배(명사 사격형이 다른 단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에 의해 제약받는 결합)
- ㄷ) 접합(종속어의 어형변화에 의거하지 않는 결합)

이들 중 ㄱ)은 한국어에 없는 유형으로, 러시아어에서 여기에 속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일부가 1)b.에 속하며 일부가 2)에 속한다. ㄴ)은 한국어의 1)에 해당되고 ㄷ)은 1)c. 또는 2)가 되는데, 부사형 중에서 ‘-게’는 변화사(變化詞)인 용언의 어형변화에 의한 부사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c.에 들어가고 ‘-히’는 단어조성 접미사에 의한 불변화사(不變化詞)인 부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2)에 들어간다.

위의 3)은 소련측에 없는 것인데 “소련 60년문법”에서는 전치사 등 보조적 단어는 단어결합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다. 예를 들어서 zhit' v Moskve(모스크바에 살다)란 단어결합은 주도어 zhit'(살다)와 종속어 v Moskve(모스크바에)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종속어 v Moskve는 “전치사 v를 수반한 전치격형 Moskve”로 기술된다. “소련 60년문법”의 견해에 따르면 3)의 유형은 1)에 소속되어야 하며 ‘들은 대로 이야기하다’와 같은 경우는 주도어 “이야기하다”와 종속어 “보조적 단어 ‘대로’가 붙은 ‘들은’”과의 결합으로 기술된다.

### 2.1.2 결합된 단어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결합”의 구분

단어 사이의 관계에 따른 구분을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39-41):

- 1) 서술적 결합: 서술적 설명을 받는 단어와 서술적 설명을 하는 단어와의 결합  
봄달이 걸리다, 바람이 날리다, 춘회는 돌아서다
- 2) 규정적 결합: 대상의 어떤 속성을 전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다만 한정해서 규정하는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는 유형  
당의 해'발, 비치는 곳, 위대한 변혁, 세기적 숙망, 이룩할 날
- 3) 객체적 결합: 어떤 대상이나 상태가 성립되기 위해 관여하게 되는 보충적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는 유형  
양수장을 건설하다, 몸뚱이로 막다, 말뚝을 박다, 밤을 밝히다, 악전고투를 잇다
- 4) 관련적 결합: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관련된 일정한 상황을 말해 주는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는 유형  
부지런히 일하다, 해마다 늘다, 아담하게 꾸러지다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명사 사격형(즉 단어결합의 종속어가 되는 형태)의 유형을 ㄱ) 객체적 (혹은 대상적) 유형, ㄴ) 규정적 유형, ㄷ) 상황적 유형과 성질-상황적 유형(시간, 공간, 원인, 목적, 동작양태 등)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북한 60년문법”에 “서술적 결합”이 있는데 이것은 특기할 만한 차이점이다. 서술적 결합은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연결에 해당하는데 “소련 60년문법”에서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진술성이 생기는 단어 연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결합에 소속시키지 않는다. “북한 60년문법”의 “서술적 결합”은 옛 소련의 이론과 마주치는 것이며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연결이 다른 “결합”으로 같은 차원이라고 삼고 있다.

### 2.1.3 주도어의 품사에 따른 “결합”의 구분

주도어의 종류에 따른 “북한 60년문법”의 “결합”의 구분은 “주도어가 명사인 경우”, “주도어가 대명사, 수사인 경우”, “주도어가 동사인 경우”, “주도어가 형용사인 경우”, “주도어가 관형사인 경우”, “주도어가 부사인 경우”의 다섯 가지고, “소련 60년문법”의 구분은 “주단어가 동사인 단어 결합”, “주단어가 명사인 단어결합”, “주단어가 형용사인 단어결합”, “주단어가 대명사인 단어결합”, “주단어가 수사인 단어결합”, “주단어가 부사인 단어결합”의 여섯 가지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술방법에 있어서 양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단어결합을 “전치사 없는 단어결합”과 “전치사 들어간 단어결합”으로 크게 나눈다. 다시 말해서 보조적 단어가 들어 있는 단어결합과 그렇지 않은 단어결합으로 무엇보다 먼저 나눈 것이다. 그 다음에 각 격형태마다 객체적 관계, 규정적 관계, 시간적 관계 등을 결합되는 동사의 종류를 밝히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것에 반해 “북한 60년문법”의 기술은 매우 빈약하다. 전치사에 대응하는 품사로는 후치사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후치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치사를 고려한 구분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 낱말 격의 의미는 “문장론”편이 아니라 “형태론”편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개략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어 “소련 60년문법”처럼 동사의 종류를 하나하나 밝히지 않는다. 기술 분량 자체도 “북한 60년문법”은 훨씬 빈약하다.<sup>4)</sup>

## 2.2 “접속”의 구분

“북한 60년문법”에서 “접속”의 유형은 크게 “병렬적 접속”과 “종속적 접속”으로 나뉘며 전자는 다시 “합동적 접속”(and형 접속), “대립적 접속”(but형 접속), “분리적 접속”(or형 접속)으로 나뉜다:

합동적 접속: 높고 푸른 하늘, 팥이와 팥이채, 붓하고 먹

대립적 접속: 낮으나 험하다

분리적 접속: 형이나 동생

1.2.2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 60년문법”의 “접속”은 “소련 60년문법”의 “등위적 단어결합”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련 60년문법”에서도 “등위적 단어결합”을 구분하는 데 결합접속사, 대비접속사, 분리접속사에 의해 연결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종속적 접속”은 “접속되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며 병렬되지 않는” 것(북한 60년문법, 37면)으로, “소련 60년문법”에 없는 유형이다. ‘형님도 고단하시거든 누우세요’, ‘우리는 지각하더라도 가겠다’, ‘땅이 말라서 딱딱하다’가 그 예로 나와 있다. “접속”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제3의 단어와 연결되는 관계이니, 문장에서 주어와 하나 있고 술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그것이 “접속형 토”로 연결되어 있으면 술어 사이의 관계가 병렬적이든 종속적이든 모두 “접속”에 속하게 된다. 다시 말해 “종속적 접속”은 술어에만 있을 수 있는 접속의 유형이다.

러시아어의 경우, 술어의 등위적 단어결합도 고려되어 있지만(уvidет’ i axnut’ “보고 외치다”; xarasho, no dorogo “좋지만 비싸다” 등), 그것

4) 단어결합의 기술은 “북한 60년문법”에서 통사론 총 311면 중 32면(10.3%)이지만 “소련 60년문법”은 통사론 총 703(제1분책)+434(제2분책)면 중 240면(21.1%)나 된다. 더군다나 “북한 60년문법”의 기술 32면 중 23면은 ‘떠날 리가 없다’, ‘가는 줄 안다’와 같이 불안전명사가 들어간 분석적인 형식에 관한 기술이기 때문에, 순수한 단어결합의 기술은 불과 9면(2.9%)밖에 되지 않는다.

은 “동종성분을 실로 뚫는 원칙”(소련 60년문법, 제2권, 제1분책, 42면)에 의해 만들어지는 “등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속적 접합”과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sup>5)</sup> “북한 60년문법”에서는 “접속형 토”에 의한 연결을 일률적으로 “접속”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접속”되는 용언 사이의 “동종성”이 후방에 물러나 “종속적 접속”의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된다.

## 3. 단어결합과 문장

### 3.1 “소련 60년문법”에서 보는 단어결합과 문장의 차이

단어결합이 “명명의 단위”이면서도 여러 개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러 개 단어의 연결체인 문장이란 단위와 단어결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옛 소련에서도 북한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다. “소련 60년문법” 이전의 단계에서는 문장과 단어결합의 구분에 관해 모호한 논의도 있었으나<sup>6)</sup> “소련 60년문법”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지양해서 문장과 단어결합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 즉 “단어결합은 문장과 달리 언어적 교류와 전달의 전일적(全一的) 단위는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1)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어결합은 “발화에서 전달되

5) “종속적 접합”과 같은 것은 러시아어의 경우 종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두 문장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러시아어 문법에서는 “절”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주어-술어”의 구조가 있으면 다 문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합문(복문)의 종속절과 주절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한다.

6) 예를 들면 Shakhmatov(1941:274)에서는 단어결합과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단어결합이라고 불리는 것은 문법적 통일체를 형성하는 단어 연결체로, 그 단어 중 하나가 다른 단어에 종속함으로써 표현된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 또한 단어결합이지만 완결된 단어결합이다.” 즉 Shakhmatov(1941)에서는 문장을 “완결된 단어결합”, 일반적인 단어결합을 “완결되지 않는 단어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는 사고의 상대적인 완결성을 조건짓는 독특한 이른바 주관적-객관적인 통사론적 범주(인칭, 시제, modality 등)는 특징적도 전형적도 아니고, (2)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전달의 억양(intonation)을 갖지 않고 주어나 술어 등 문장성분은 단어결합과 무관”하다고 한다. 전자는 진술성(predikativnost'; predicativ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문장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진술성과 전달의 억양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문법과학에서는 그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지금까지 완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어 문장의 일반적인 독자적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전달의 억양과 진술성, 즉 언어적 교류의 문법적으로 조직화된 단위로서의 문장의 본질을 규정, 확정하는 문법범주의 총체이며, 현실에 대한 화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완결된 사고(思考)에 관해 구상화(具象化)하는 것이다.” (소련 60년문법, 제2권, 제1분책, 76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진술성이 “문장의 본질을 규정, 확정하는 문법범주의 총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술성은 문장을 특징짓는 “문법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술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1) “modality”(modal'nost')
- a) “동사의 법 형태”(formy glagol'nykh noklonenij)
- b) “modal한 소사와 단어”(modal'nye chasticy i slova)
- c) “억양의 특수한 형태”(osobyje formy intonacij)
- 2) “시제”(vremija)
- 3) “인칭”(lico)
- 4) “억양”(intonacija)

### 3.2 “북한 60년문법”에서 보는 단어결합과 문장의 차이

“북한 60년문법” 역시 옛 소련의 문법론과 마찬가지로 단어결합과 문장을 구분하는 데 “술어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그것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술어성이란 진술의 내용을 현실에 귀착시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객관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술어성은 문장의 필수적 표식이다.

언어적 교제의 기본 형식으로서의 문장은 현실과의 이리저리한 관계에 놓이는 조건 하에서만 자체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다.” (북한 60년문법, 제2권, 5면)

“술어성”에 관해서는 북한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고, 용어면에도 “술어성” 이외에 “진술성”도 사용되었던 것 같다. 이 “술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북한 60년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 1) “양태성”
  - a) “법 형태”, “시칭 형태”(특히 미래시칭)
  - b) “양태적 단어”(양태동사, 양태부사, 양태조사)
  - c) “특수한 유형의 문장론적 수단” ... -을 수 있다, -을 듯하다, -고 싶다 등
- 2) “시칭”
- 3) “청자와 화자의 관계” ... “인칭”, “계칭”(계칭과 관련해서 “존칭”)
- 4) “언어적 환경”
- 5) “어조”

북한측과 소련측을 비교해 보면 대략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언어적 환경”이 소련측에 없지만 소련측에서는 이것이 3) “시제” 중에 “발화의 상황과 문맥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제의 통사론적 의미”로서 포함

되어 있다.<sup>7)</sup>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이것을 “술어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독립시켜 준 셈이다.

#### 4. 단어결합 설정 문제에 관한 논의

##### 4.1 “북한 60년문법”에서의 논의

“북한 60년문법” 제2권의 서론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단어결합”이라는 단위를 설정하는 데 나서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① 단어결합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 즉 단어 연결체 중 어느 것을 단어결합으로 인정하고 어느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문제, ② “서술적 결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 즉 주어와 술어의 연결에 진술성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단어결합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③ 단어결합에서 제외되는 “서술적 결합”이나 “접속”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 즉 러시아 단어결합론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 연결체의 처리 방법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북한 60년문법” 제2권에서는 단어결합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들의 문법적 연결”이라는 개념을 채택한 것 같다.

첫째로, 단어결합의 한계 문제에 관해서 “북한 60년문법”에서는 규정적 결합은 모두 단어결합에 포괄하는데 그 밖의 결합은 가장 긴밀한 것만을 단어결합에 포괄한다며, “그 《긴밀한 것》의 한계가 과연 설정될 수 있겠는가”(북한 60년문법, 제2권, 20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긴밀한 것”은 아마 “객체적 결합”과 “관련적 결합”의 일부를 가리키며 그렇지 않은 것은 “관련적 결합”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관련적 결합”에서, 즉 상황어가 단어결합의 종속어가 되는 단어 연결체에서 어떤 상황어가 단어결합을 이루며 어떤 상황어가 단어결합을 이루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 (1) 다른 병원에도 혼수상태에서 해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회색병원 68)
- (2) 이 작품에서는 신문사지국이라는 소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인물들의 상징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자전거는 딸배타고 244)

예를 들어 위의 예 (1)에서 ‘혼수상태에서’는 ‘해매다’와 연결됨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2)에서 ‘작품에서는’은 혹시 ‘필요하다’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작품에서는’ 이후의 부분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연결되는 단어가 분명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 Valenz 이론이나 논항구조 이론에서도 상황어가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소련 60년문법”에서도 가끔 문제시되는 부분이다.<sup>8)</sup>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서는 “긴밀한 것”과 “긴밀하지 않은 것”, 단어결합에 들어가는 “긴밀하지 않은” 상황어와 단어결합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어 사이에는 원래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을 명확히 경계짓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 단어결합 대신에 “결합”, “접속”을 설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합”을 설정해도 예문 (2)와 같은 것이 “결합”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항상 달라붙어,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단어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에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의 “서술적 결합” 문제인데, 북한에서 주어와 술어의 연결, 즉

7) 예를 들면 ogon'!(불!)이라는 발화는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 “쏘아라!”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불을 켜라”, “불을 가지고 와라”라는 뜻도 가질 수 있고, “불이 보인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다고 한다.

8) “소련 80년문법”에서는 단어결합에 들어가는 상황어와 문장 전체와 연결되는 상황어 두 가지를 구별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경계는 뚜렷하지 못하다.



진술적 연결을 “결합”으로 인정한 것은 북한 단어결합론의 방향성을 잡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련 60년 문법”에서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진술성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단어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Ja chitaju knigu(나는 책을 읽는다)란 문장에서 술어 chitaju(읽는다; 직설법 1인칭 단수 현재)는 진술성의 중심적 기동인 시제, mood 형식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형식은 주어 ja(내가)와의 조응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주어와 술어의 연결은 문장을 형성하는 연결이며 단어결합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주어와 술어를 가진 문장은 항상 “진술적 연결+단어결합”이라는 형식이 되어 문장과 단어결합은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그런데 “북한 60년문법”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술어성”을 가진 전달의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만약에 주어와 술어의 연결이 전달의 단위라고 가정해도 ‘옥회는 춘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곧바로 문장이 될 수 없다며 “서술적 결합”은 전달의 단위(즉 문장의 표식)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필자 역시 한국어의 경우 주어와 술어의 연결에서 곧바로 진술성이 생긴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진술성을 근거로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단어결합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동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한국어는 러시아어처럼 주어와 술어의 조응에 의해 술어의 시제, mood 형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술어만으로 그 형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러시아어와 달리 주어와 술어의 연결이 진술성과 무관하고 단어결합에 속한다고 보면 되지, 러시아어와 다르다고 해서 단어결합이라는 단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없다.

또 ‘옥회는 춘다’에 관해서는 “북한 60년문법”에서 적지 않은 오해와 몰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옥회가 춘다’의 불완전성은 그것이 “서술적 결합” 때문이 아니라 ‘추다’라는 동사의 어휘-문법적 의미의 불충분성의 문제이다. 즉 ‘추다’는 어휘-문법적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춤을 추다’, ‘탱고를 추다’처럼 체언 대격형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 문제는

옛 소련 문법론에서도 취급된 문제이며,<sup>9)</sup> 한국어에서 주도어의 어휘-문법적 의미의 불충분성 때문에 종속어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의성(1997)에서도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지적한 바 있다.

되다 — 의사가 되다  
간주하다 — 바보로 간주하다  
생기다 — 예쁘게 생기다

따라서 ‘옥회는 춘다’ 유형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성”을 진술성이나 전달의 문제와 관련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를 가지고 “단어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하는 것은 어렵다.

세 번째의 문제, 즉 만약에 단어결합을 인정했을 경우 거기에서 제외되는 “서술적 결합”과 “접속”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소련 80년문법”에서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소련 80년문법”에서는 문장에서의 단어 연결에는 단어결합 이외에도 진술적 연결, 피동형과 조격형의 연결, 상황어와 문장 전체의 연결을 설정하고 있으며 문장에서 단어결합 이외의 연결체를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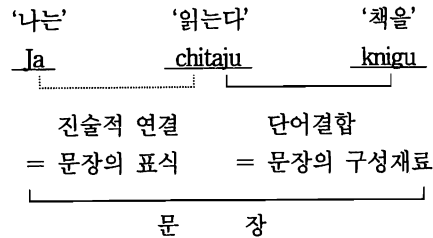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 서면 문장을 형성하는 단어 연결체는 비단 단어결합만에 한정되어야 할 필연성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60년문법”에서도 “결합”, “접속”이라는 두 가지 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북한 60년문법”의 “결합”은 실질적으로 “소련 60년문법”의 단어결합과 대강 동일하지만 이것을 “단어결합”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하면서 판 것으로 삼아야 할 필연성이 있을 것인지 필자에게는 의심스럽다.

9) “소련 60년문법”에서는 “몇몇 단어는 의미의 불완전성 때문에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제2권, 제1분책, 18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개념은 “소련 80년문법”에서도 “정보적으로 불충분한 관계”로 이어받고 단어결합의 하나의 유형으로 삼았다.

## 4.2 진술적 연결과 “단어결합” 부정의 관련성

4.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어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서 “북한 60년문법”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이 필자는 명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북한 60년문법”에서 단어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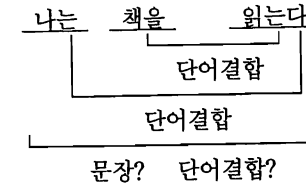
진술적 연결의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한다. “북한 60년문법”에서처럼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진술성 발생의 자리로 인정하지 않고 단어결합으로 삼는다면 단어결합과 문장은 형식적인 차이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읽는다’와 같은 경우, 러시아어는 아래에 표시한 것처럼 ja와 chitaju의 연결이 진술적 연결로서 단어결합에서 제외되고, chitaju knigu 부분만이 단어결합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소련의 이론이면 진술적 연결과 단어결합이 명확히 구별되고 전자는 “문장의 표식”, 후자는 “문장의 구성재료”로서 구실하게 된다.

이에 반해 “북한 60년문법”에서 던진 문제 제기 대로 “단어결합”을 인정하면서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단어결합으로 삼는다면 아래의 ‘내가 책을 읽는다’처럼 문장 전체가 단어결합이 되어 버려, 문장과 단어결합의 경계가 대단히 모호해진다. 더군다나 문장과 단어결합의 형식적 동가성 때문에 단어결합이 가진 “문장의 구성재료”로서의 기능도 모호해져, 단어결합이라는 단위를 일부러 설정해서 문장 밖에서 “문장의 구성

재료”로서 분석하지 않아도 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으로서 연구하면 충분히 단어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분할되어 문장 밖에서 연구되는> 언어의 한 단위로서의 단어 결합 문제는 앞으로의 더 깊은 연구를 예견하면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북한 60년문법, 20면)고 하며, “다만 조선어의 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의 온갖 결합과 접속에서 볼 수 있는 그 구조적 특성을 밝히며 그 합법칙성을 고찰”(20면)하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렇게 고찰하면 “북한 60년문법”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문장의 표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바꿔 말하면 주어와 술어의 연결을 “단어결합”적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어결합과 문장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소련 60년문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은 “단어결합”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관해 필자의 견해는 “북한 60년문법”과 크게 다르고, 그래도 문장과 단어결합은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서 진술성이 주어와 술어의 연결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에 의해 진술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의 ‘나는 책을 읽는다’란 문장의 경우 이 문장이 ‘내가 책을 읽다’란 세 단어로 된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어떤 수단에 의해 그 단어결합에 진술성이 부가되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는가. 예를 들면 ‘읽는다’란 어형 그 자체에 의해서 진술성이 생기거나 ‘나는’의 ‘-는’처럼 modal한 어미에 의해 진술성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음과 같은 예는 어떨까.

(3)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골목은 밝았다. (오리 사냥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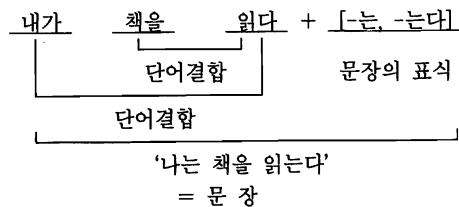
결합의 관점에서 보면 문장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단어결합은 ‘밝다’를 주도어로 하는 ‘여전히 골목이 밝다’이며 ‘어둠 속에서’는 ‘밝다’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골목은 밝았다’ 전체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에 ‘-도’가 붙고 ‘골목이’가 ‘골목은’으로 되며 ‘밝다’가 ‘밝았다’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각기가 결합 양상과는 별개로 문장성분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어, 문장성분과 단어의 결합은 각각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단어의 결합문제와 문장성분의 문제를 혼동하는 일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며 문장에서 단어결합을 추출해서 “문장 밖에서 연구되는, 문장을 구성하는 재료로서의, 명명의 단위로서의 단어결합”을 연구한다는 “소련 60년문법” 방식의 단어결합 연구는 한국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10)</sup>

## 5. 마무리

위와 같은 검토에서 “북한 60년문법”에서 전개된 단어결합론이 “소련 60년문법”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 실험적인 면이 있는 것을 알

10)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단어결합과 문장의 구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수 있으며 옛 소련의 이론 도입에 있어서 시행착오의 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른바 진술적 연결을 “결합”으로 인정한 것은 “소련 60년문법”과 크게 다른 부분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 한편 “북한 60년문법”이 “소련 60년문법”에서 전개된 이론 체계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면도 적지 않게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단어결합”이란 단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로, 진술적 연결을 “결합”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어결합과 문장의 구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혼란 양상에 시대적인 한계성을 느끼기도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서, “북한 60년문법”이 “단어결합”이란 단위를 인정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문장 밖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단위”로서의 단어결합을 등한시한 것은 주도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의해 종속어의 형태가 지정된다는 단어결합론의 핵심부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셈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 60년문법” 이후, 북한의 단어결합론은 단어결합이란 단위를 인정하고 분석하는 조류와 단어결합이란 단위를 인정하지 않고 문장성분론으로 분석하는 조류로 갈라진 모양이지만 그러한 논의들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이 “북한 60년문법”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후 북한 단어결합론의 체계가 옛 소련의 이론 체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벗어나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게 된 점을 생각할 때, 북한 단어결합론에 관한 논의에서 이 문법서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 참고 문헌

### a) 북한 문헌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문화어문법》.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0), 《조선어 문법 1》, 과학원 출판사(“북한 60년문법”).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63), 《조선어 문법 2》, 과학원 출판사(“북한 60년문법”).  
 김갑준(1988), 《조선어문장론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김영환(1983), 《문화어문장론》,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영환, 권승모 편(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 문학부.  
 김용구(1986), 《조선어리론문법(문장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72), 《문화어문법규범(초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76), 《조선문화어문법규범》, 평양.  
 백춘범(1992), 《조선어 단어결합과 단어어울림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장석훈(1962), 현대 조선어의 공고한(성구문적) 용언적 단어 결합에 대하여, 《조선 어학》, 1962년 제4호, 평양:과학원 출판사, 6~18.  
 朝鮮 語文 研究會(1949), 《朝鮮語 文法》, 平壤:文化出版社.  
 편집부(1963), 《술어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조선 어학》, 1963년 제2호, 평양:과학원 출판사, 50~52.

## b) 옛 소련 문헌

- Akademija nauk SSSR(1954), *Grammatika russkogo jazyka*, Tom II, Sintaksis, Chast' pervaja, Izdatel'stvo akademija nauk SSSR, Moskva(소련 과학 아카데미(1954), 《러시아어 문법》, 제2권, 통사론, 제1분책, 모스크바:소련 과학 아카데미 출판사) ("소련 60년문법").  
 Akademija nauk SSSR(1970), *Grammatika sovremennogo russkogo literaturnogo jazyka*, Izdatel'stvo «Nauka», Moskva(소련 과학 아카데미(1970), 《현대 러시아 표준어 문법》, 모스크바:나우카 출판사) ("소련 70년문법").  
 Akademija nauk SSSR(1980), *Russkaja grammatika*, Tom II, Sintaksis, Izdatel'stvo «Nauka», Moskva(소련 과학 아카데미(1980), 《러시아어 문법》, 제2권, 통사론, 모스크바:나우카 출판사, 모스크바) ("소련 80년문법").  
 Kholodovich, A. A.(1954), *Oчерк grammatiki korejskogo jazyka*, Izdatel'stvo literatury na inostrannykh jazykakh, Moskva(홀로도비치, A. A.(1954), 《한국어 문법 개설》, 모스크바:외국어 문헌 출판사).  
 Koncevich, L. R.(1971), 蘇聯의 韓國語學, 《亞細亞研究》 XIV, No.2, 서울: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간노 히로오미에 의한 Koncevich, L. R.(1967), *Korejskij jazyk, Sovetskoe jazykoznanie za 50 let*, Moskva(콘체비치, L. R.(1967), 한국어, 《소련 언어학 50년》, 모스크바)의 한국어 번역).  
 Shakhmatov, A. A.(1941), *Sintaksis russkogo jazyka*, Gosudarstvennoe uchevno-

pedagogicheskoe izdatel'stvo narkomproca RSFSR, Leningrad(샤흐마토프, A. A.(1941), 《러시아어 통사론》, 레닌그라드: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교육인민위원회 국립 학습-교육 출판사).

## c) 기타 문헌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1997), 북한 문법학의 계보와 소련 언어학과의 관계(1945~1990), 《東方學志》, 第98集(延世大), 353~417.  
 겐고가쿠엔카이[言語學研究會](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東京:むぎ書房.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高麗大學校 出版部.  
 김현강(1995), 《'단어결합'의 문법적 개념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3), 現代朝鮮語の對格と動詞の統辭論, 《言語研究III》, 東京:東京外國語大學語學研究所, 77~168.  
 서상규(1997), '단어결합'과 '단어어울림'에 대한 고찰, 《東方學志》, 第98集(延世大), 419~468.  
 임흥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서울:한국문화사.  
 趙義成(1994), 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50輯, 天理:朝鮮學會, 19~72.  
 조의성(1997),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163輯, 天理:朝鮮學會, 1~36.  
 陳滿理子(1996), 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單語結合論の觀點から, 《朝鮮學報》, 第160輯, 天理:朝鮮學會, 1~64.  
 [日本, 950-0814 新潟縣 新潟市 ██████████ / 日本, 950-8680 新潟市 海老ヶ瀬 471 縣立新潟女子短期大學 國際教養學科]  
 E-mail : choes@int.nicol.ac.jp  
 접수일자 : 2001. 8. 21.  
 게재 확정 일자 : 2001. 10. 12.